

과학 先進化대열에

과학先進化로 新한국창조

우리는 금세기가 끝나기 전에 선진국대열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을 이미 오래 전부터 수없이 들어왔다. 그러나 21세기 선진국 도달이라는 이 말이 실감이 나지 않았다. 2000년대에 이르는 것이 아직도 먼 앞날의 일로 느껴져 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평범한 노력만으로도 2000년대에 이르게 될 무렵에는 우리나라도 세계 선진국대열에 들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3년의 새해를 맞이하면서부터는 21세기 선진국 도달이라는 말이 단순한 구호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필코 달성해야 할 국가지상과제임을 절감하게 된 것이다. 2000년대가 정말로 우리 눈앞에 다가왔고 또 21세기 선진국 도달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비범한 노력이 지금부터 절실히 요청되기 때문이다.

1993년 새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하여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신한국 창조」가 강조되고 있는 만큼 여러가지 개혁이 원활히 추진되어 7년후로 다가선 21세기에 이르러서는 우리나라의 선진국 도달이 차질 없이 성취되기를 기대한다. 모든 분야에서의 개혁과 발전이 균형있게 달성되어야 하며 또한 오늘의 신한국 건설의 노력이 21세기 선진국 도달로까지 이어져나갈 것이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의 책임이 중차대하다고 하겠다. 더구나 오늘의 우리 처지가 선진국에 많이 뒤져있다는 사실과 국제경쟁이 격심한 현실을 생각하면 오늘의 우리의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할 것이다.



崔 相 業

(서강대 명예교수/과총고문)

今世紀내 들어가야

신한국 건설을 향한 정부의 여러 시책이 과감히 시행되기를 기대하면서 나는 과학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을 각별히 강조하고 싶다. 앞으로의 세대는 과학기술의 세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의 발전 없이 선진국에 도달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 하겠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하여는 과학기술투자의 획기적인 확대를 위시한 여러가지 시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나 나는 여기서 과충의 역할과 관련한 한두가지를 특히 강조하려고 한다.

기초과학학회 적극지원

첫째로 기초과학의 선진화가 강조되어야 한다. 현대의 과학은 그 발전속도가 너무도 빨라서 오늘의 과학이 내일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을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있는 우리에게 기초과학의 선진화는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기초과학의 선진화가 시급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21세기 선진국도달의 꿈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세계의 어느 선진국을 보아도 기초과학의 수준이 낮은 나라는 없다.

과충의 산하 회원단체중 기초과학학회는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으나 여러 기초과학학회가 각기 개별적으로 기초과학의 진흥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초과학의 발전을 조속히 이룩하기 위하여는 기초과학학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여건이 과충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또한 기초과학은 그 성과가 가시화되기까지 오랜 시간을 요하는 것이므로 기초과학의 획기적인 발전은

시급히 이룩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多學問영역간 협동연구

현대과학의 또 다른 특징의 하나로서 다학문(多學問) 영역 간에서의 종합화된 연구개발을 필요로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에너지과학분야, 환경과학분야, 생명과학분야 등과 같이 다학문영역분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는 어떤 한 분과의 과학지식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인접된 다른 분과의 협동연구가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인접된 분야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이런 성향이 더 클 것으로 생각된다.

다영역간의 종합화된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서로 인접된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학술토론과 정보교환을 하는 일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런 다영역적인 학술활동은 해당 각 분야 인사들의 노력에 의존할 것임은 물론이지만 과충이 중심이 되어서 인접분야간의 과학기술 종합화활동이 활발히 촉진되기를 기대한다.

科總중심 국제교류 확대

또 오늘의 과학기술은 국제간에 격심한 경쟁상태에 놓여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과학기술의 국제교류와 협력이 절실히 요망된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과충이 중심이 되어 국제학술토론회 등의 모임을 빈번히 개최함으로써 전세계의 권위있는 과학기술계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기회를 만들어서 과학기술의 국제교류와 협력이 원활히 이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